

말레이 민족주의의 형성과 전개과정(1896-1941)*

홍 석 준**

I. 들어가는 말

이 글은 말레이시아를 대상으로 동남아시아에서 '근대'의 이미지가 형성되는 역사적 배경과 그 전개과정에 대한 기술과 분석을 통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근대'가 갖는 특수성을 고찰하기 위한 시론의 성격을 지닌다. 유럽의 식민지배는 동남아시아 사회와 문화의 가장 뚜렷한 특징 중의 하나인 종족적, 문화적 다양성 또는 이질성을 만들어내는 데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는 현재까지도 이 지역의 사회문화적 갈등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독립 이후 이 지역의 국가적 과제인 민족통합(national unity)을 이룩하는 데 가장 큰 장애로 작용하는 것이 유럽 식민주의의 지배 또는 그 결과이다. 동남아시아의 역사는 곧 유럽의 식민 지배와 그에 대한 각 민족의 저항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식민 지배의 상처는 그 지역사람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강하게 남아 있다. 의식주를 비롯한 일상생활에까지 식

*) 본 논문은 2000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인문학육성분야 지원을 받아 작성된 것이다. 본 논문의 초고를 읽고 유익하고 날카로운 논평을 해 주신 한국동남아학회 임명의 심사위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 목포대학교 역사문화학부 문화인류학 전공 교수

민 잔재는 뿌리깊게 남아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민족주의는 제3세계 탈식민주의 투쟁의 중요한 특징이다(홉스봄(E. J. Hobsbawm) 1987). 민족주의 또는 민족주의적 정체성은 19세기부터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식민주의에 대한 저항의 수단으로서 그 구체적인 양상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런 점에서 식민 경험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제공하기 위해선 민족주의라는 쟁점과 이론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조우하지 않을 수 없다.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 볼 때 민족은 일종의 '상상의 공동체', 즉 본래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정치적 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상을 통해 지속성을 갖는 문화적, 역사적 구성물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앤더슨(Anderson, Benedict) 1995 참조). 민족을 '상상의 공동체'로 보는 이유는 매우 소규모적인 민족의 구성원들이 그들의 동료들의 대부분을 결코 모르고 그들을 만나지도 않으며 심지어 그들에 관한 이야기조차 듣고 있지 않지만 그들 각자의 생각에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이미지가 살아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 문화적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민족주의는 민족을 자의식에 이르도록 일깨우는 것이 아니라, 민족주의가 실재하지 않는 민족들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민족주의는 허위의 외양으로 그 본질을 감추고 있기 때문에 상상적인, 창출보다는 날조, 허위와 발명을 동질화할 위험이 있다. 여기에는 민족을 대체할 수 있는 '진정한' 공동체가 존재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러나 사실상 대면 접촉이 이루어지는 원초적인 마을 단위보다 규모가 큰 모든 공동체는 상상된 것이다. 공동체는 그 공동체의 허위 또는 진본에 의해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들이 상상되는 양식에 의해 구분되어야 한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이 글은 말레이시아가 영국의 식민지배를 받았던 시기 중에서, 말레이시아와 영국간의 연방조약(Treaty of Federation)이 체결됨으로써 식민지배의 제도화가 정립되기 시작한 시기부터 말레이시아가 일본의 침략을 받게되어 영국이 물러나기 시작한 시기까지, 즉 1896년부터

1941년까지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이는 이 시기가 말레이시아에서 영국의 식민 지배가 본격화되는 시기임과 동시에 식민 지배에 대한 민족주의적 저항이 가장 활발히 전개되었던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말레이시아에서 '근대'가 형성되어 전개되어 나간 가장 중요한 시기인 것이다. 이러한 판단 하에서 말레이시아의 '근대'의 이미지는 말레이인의 일상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삶에 반영되어 나타난다는 전제에서 논의를 출발하고자 한다.

말레이시아의 종족적 다양성은 주로 이 시기에 형성되었으며, 그것은 말레이시아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말레이시아에서 '근대'에 대한 경험적 이해는 일상생활에 투영된 그들의 인식체계 또는 가치관의 형성 배경을 이해하도록 함으로서 인간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위한 첫 발걸음의 의미를 지닌다. 이 시기는 소위 영국령 말라야(British Malaya) 체제가 확립된 시기라고 불린다. 이 시기에 말레이시아가 경험한 중요한 정치적, 사회적 변화는 '말레이민족주의'(Malay Nationalism) 또는 '말라야민족주의'(Malayan Nationalism)이라 불리는 민족주의의 의식의 형성과 '근대'적 조직의 성립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Landon 1943; Muhammad Ikmal Said 1995; Silcock and Ungku Abdul Aziz 1953). 특정의 지역집단과 언어집단내의 소속과 구분이 중요한 사회조직의 원리로 작용했던 이전의 시기와 달리 이 시기는 민족주의적 각성을 통해 새로운 정체성이 형성되었으며, 정당이나 언론, 학교, 노동조합 등과 같은 정치, 사회조직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시기로 간주된다(오명석 2000: 245). 여기서는 이 시기에 영국의 식민주의와 말레이시아의 민족주의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였으며, 그것이 말레이시아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말레이시아 민족주의의 형성과 전개과정을 통해 고찰한다. 이를 위해선 식민주의와 민족주의에 대한 기존의 이론적 연구 동향과 실제적 연구결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말레이시아에서 유럽 식민주의는 어떻게 지배력을 행사했으며, 그에 따라 말레이 민족주의는 어떠한 배경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형성, 전개되었는가를 다룬다. 식민주의의 결과는 그들의 역사와 문화를 단절시켰는

가, 아니면 식민 지배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그들 역사와 문화의 고유성을 보전했는가를 살펴본다. 말레이시아의 시각에서, 영국으로 대표되는 서구 식민주의에 대한 이미지는 무엇이며, 그것이 말레이시아의 '근대'를 형성하는 데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일상생활의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역사적으로 영국의 식민주의가 어떻게 출현했으며, 그에 대한 말레이시아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한지를 '민족주의의 형성과 전개'라는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이슬람을 통해 민족주의적 유대와 단결을 고취한 말레이 민족주의자들의 식민주의에 대한 대응에 주목할 것이다.

말레이시아에서 '근대'는 단순히 영국 식민주의의 산물이 아니다. 그것은 말레이시아의 민족주의라는 전통에 의해 새로이 발명된 것이다. 이는 현대 말레이시아의 정치적, 사회적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이론적 진단과 처방을 제공할 것이다. 식민주의는 근대를 형성하는 주요 원인이지만 그것을 특정의 맥락에서 구체화하는 것은 그 속에서 살아 온 말레이시아 사람들의 삶이다. 이러한 사회적, 역사적 현실 속의 삶 속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에 얽혀 역동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역사적, 문화적 구성물로서의 '근대'이다.

말레이인들은 '게으른 원주민'이 아니다. 이는 서구의 인식체계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에 기초하여 영국 식민통치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하나의 '근대'의 이미지임과 동시에 신화라고 볼 수 있다(Alatas 1977 참조). 이러한 지적은 특정의 문화는 그 문화가 만들어진 특수한 역사적 경험이나 사회적 상황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 자체의 고유성과 자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인식론적 지평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이는 말레이시아와 말레이시아 사람들을 기존의 서구 중심적 사고방식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고유한 문화를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주체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포함하는 것이다.

II. 영국 식민주의의 특성과 전개과정

동남아시아에 유럽 식민주의 세력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16세기 포르투갈의 진출로부터라고 볼 수 있다(오스본(Osborne, Milton) 2000). 포르투갈인들은 그들이 페르시아만에서 말라카(Malacca) 해협을 통해 향로를 발견하고 이 곳에 그들의 요새를 구축하는 일이 십자군 운동의 일환이며 아시아에서 이슬람의 확산을 막는 것이 신이 그들에게 부여한 임무라고 믿었다. 포르투갈인들은 이전 무슬림들이 하던 동서무역을 그들이 관장하고 심지어는 유럽세력 중에서도 자신들이 이를 독점하려고 했다. 포르투갈인들이 말라카를 점령하고 동서간의 향료무역을 독점하며 아시아 지역에서도 태국의 아유타야 왕조나 마카오를 거점으로 한 중국과 교역하여 이익을 챙기고 있었다. 16세기에는 스페인도 향료제도에 관심을 갖고 이를 개척하기 위해 태평양을 지나 동남아까지 이르게 된다(Reid 1988, 1992). 스페인과의 사라고사(Saragossa) 조약을 통해 포르투갈은 동남아 무역 독점권을 인정받았다(Provencher 1975).

포르투갈 문화는 주로 말레이어와 말레이 문화에 영향을 미쳤다. 포르투갈어에서 유래된 말레이어의 단어 수는 약 백여 개가 넘는다. 이 중에는 기독교와 직, 간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단어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예컨대 말레이어의 밉구(minggu)는 포르투갈어의 도밍고(Domingo)에서 왔으며, 그 뜻은 신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그것은 보통 주(week)의 의미로 쓰인다. 아마도 캐논(cannon)의 뜻을 지닌 머리암(meriam)은 포르투갈의 대포의 도화선에 불을 붙일 때 소리치는 “포르 산타 마리아”(Por Santa Maria)에서 유래된 것이다. 이 외에 교회를 뜻하는 그라자(geraja)는 이그레자(igreja)에서 온 것이다. 말레이인들은 포르투갈인들을 만나기 이전부터 이미 이 단어들의 의미와 형태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차용된 단어의 의미와 형태는 말레이인들의 행위나 예술품과 포르투갈인들의 생활방식이 서로 관련되어 있었음을 말해 준다.

특히 포르투갈 문화는 주로 여성의 의상, 민속춤, 음악 등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는 당시 포르투갈인들이 동남아시아의 여성들과 결혼하여 생활하면서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17세기초에 이르러 포르투갈인들의 세력은 점차 약화되고 이 지역에서의 서구 세력으로 네덜란드가 부상한다. 영국도 네덜란드와 함께 동남아 지역의 새로운 식민 세력으로 등장한다. 영국은 스페인과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해양세력으로 식민 지배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된다. 17세기 후반에 네덜란드인들은 도서부 동남아에 동인도회사를 설립하고 동남아 지역에서의 활발한 무역활동을 하였지만 영국은 당시에는 동남아 진출까지는 역부족이라고 느끼고 인도무역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Tarling 1993).

그러나 **페낭(Penang)** 할양, 영국령 인도에 버마(미얀마의 옛 이름)인의 침입이라는 상황변화로 인해 점차 동남아 지역에서도 영국의 세력이 강해지기 시작한다. 네덜란드에 나폴레옹의 네덜란드 침공으로 네덜란드는 잠시동안 영국이 동인도회사를 관리할 것을 부탁, 영국이 이 지역 관리를 도맡게 된다. 1811년에서 1816년까지 영국이 자바, 수마트라, 말라야 등을 관리하다가 네덜란드가 다시 돌아오자 평화적으로 이들에게 돌려준다. 당시 총독이었던 래플스(Raffles)는 1819년 싱가포르를 개척하며 이때 말레이 반도의 **카다(Kedah)** 주의 술탄이 태국으로부터 위협을 느끼고 영국에게 도와줄 것을 요청하여 그 대가로 **페낭**을 주게 된다. 이리하여 영국은 해협정착지를 형성하고 거점무역을 발전시킨다. 1824년 **영화(英和)조약(Treaty of British-Netherlands)**을 통해 동남아 해양지역에서 각각의 영향권의 경계를 정한다. 유럽인들의 동남아 진출은 18세기 말경부터 19세기 초엽에 더욱 활발하게 나타나며 이는 도서부 동남아 뿐만 아니라 대륙부 동남아에까지 이르게 된다. 바야흐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서구적 의미에서의 '근대'의 이미지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19세기초에 이르면 동남아에서 영국의 영향력, 그리고 이익이 증가하게 된다. 이는 산업혁명의 성공으로 영국은 값싼 원료의 공급에 필요한 지역과 넓은 시장을 필요로 하는데 동남아 지역이 그 역할을 해 줄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점차 제국주의적 성향을 띤 식민지배 형식으로 바뀌어 나가기

시작한다. 영국은 미얀마, 점령과 함께 서구에 개방적인 태국에도 강한 영향력을 갖는다. 이에 프랑스는 인도차이나 반도에 진출하여 일찍부터 베트남과 관계를 맺어 선교사 파견 등의 활동을 한다. 베트남이 초기와 달리 점차 프랑스와 스페인의 선교활동을 탄압하자 프랑스는 이를 빌미로 군사를 이끌고 와서 식민 지배를 위한 초석을 형성하였다. 이와 같이 19세기말 동남아 지역에서는 프랑스, 영국, 태국이 이 지역의 영향력 있는 통치권을 갖게 된다. 유럽의 산업혁명으로 인해 가능해진 거대 시장과 천연자원에 대한 대량 공급을 통해 식민주의의 역사적 서막이 열리게 것이다.

19세기 말레이 반도의 역사와 문화를 논할 때 싱가포르의 건설, 1824년의 영국-네덜란드 조약, 해협식민지(Straits Settlements)의 성립, 화인들의 일시적인 대량 유입으로 인한 주석산업의 성장, 1874년 말레이 반도로 영국의 점진적 이동, 영국식 행정제도의 도입과 발전, 1896년 연방 말레이 주의 형성과 고무농장의 본격화 등을 거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다독 자이날 아비딘 빈 압둘 와히드 편 1998: 72). 사실상 19세기 초반에 말레이 반도는 하나의 정치적 단위라기 보다는 여러 개의 독립적인 주들의 집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들간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말레이인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은 각각의 독립적인 주들의 특성과 말레이 반도 내부의 민족의식의 성장을 고찰하는 데 매우 중요한 관점을 제공한다. 19세기 초반에 말레이 사회의 정치구조는 술탄이 존재했으며, 그 아래로 귀족의 후손들과 귀족이 아닌 후손들로 구성된 수많은 관료들이 있었다. 이들의 역할은 주로 의례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로부터 행정적, 군사적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했다.

19세기 중반에 말레이시아는 영국의 식민 지배하에 들어갔다(Cowan 1986). 말레이 술탄에 대한 영국의 지배 형태는 다른 지역과 큰 차이가 났다. 술탄 네 명이 1870년에 영국과의 조약에 서명했고 1895년에 단독 행정단위로 합병되었다. 이는 1896년부터 말레이 반도에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다른 네 명의 술탄, 즉 말레이 반도 북부의 케다(Kedah), 빠를리스(Perlis), 끌란탄(Kelantan), 트렝기누(Trengganu) 주들은 1909년에 태국의 종주

권으로부터 벗어났고 같은 해에 조약에 서명했다. 조호르(Johor) 주의 술탄은 1914년에 그러한 조약에 서명한 마지막 주의 술탄이었다. 남은 다섯 주는 연방에 참여하기를 거절했고 비동맹 말레이 주로 남겨졌다(다툼 자이날 아비딘 빈 압둘 와히드 편 1998: 98-101). 이 조약은 각 주의 술탄이 '종교와 관습'(Agama Islam dan Istiadat)을 제외한 모든 문제에 대해 영국 식민주의자의 권고를 따르도록 요구했다(Roff 1994). 영국의 관점에서 보면, '종교와 관습'이 매우 작은 우주라는 생각이 통상적이긴 하지만 항상 보편적이진 않았다. 말레이인의 관점에서 보면 종교와 관습은 실제로 모든 것을 포함하는 우주였다. 영국의 이러한 식민 지배 방식은 말레이 술탄들과 그들의 왕궁을 보전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았다. 그러나 소규모 왕국의 수장들의 도움이 없이는 술탄의 권위가 성립되지 않았다. 영국이 후원한 1870년의 주석전쟁에서 살아남은 수장들은 술탄에 본격적으로 종속되었다. 초기에 영국 식민관료들은 수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그 후 영국 식민통치자들은 모든 주의 정규적인 식민 행정관료 기구를 장악하여 실질적인 식민 지배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시기에 말레이시아의 전통적인 정치, 경제체제는 급격히 변모했다. 말레이 전통체제의 주된 약점은 제한된 권력의 자리를 놓고 서로 경쟁한 왕족과 귀족의 증가를 제대로 조정하지 못한 무능력에 있었다. 이러한 내부의 분쟁은 계속 증대되어 모든 귀족들은 술탄 근처에 머물게 되었고, 도시 이외의 지역에 대한 행정은 통제를 벗어나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왕족과 귀족들이 술탄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정에 대한 술탄의 명령에 대한 실질적인 거부권을 부여받았을 때 최고조에 달했다. 1903년경에 이르러 이러한 전통적인 정치적, 행정적 조직은 영국의 식민 체제에 의해 대체되었다(다툼 자이날 아비딘 빈 압둘 와히드 편 1998: 96-97).

영국은 원료의 공급지와 시장을 식민지 경영을 통해 해결하려고 식민정책을 통해 말레이시아 지역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말라카, 삐낭 등을 중심으로 영국이 말레이 반도를 통치할 때 술탄들의 기득권을 인정한 상태에서 영국인 고문관을 채용하여 활동하게 함으로써 후에 말레이 연방으로 통합하는 정

책을 시행했다. 이로 인해 전통적인 말레이 정치체제는 크게 손상되어 거의 붕괴될 위험에 처했다. 그러나 영국에 의해 새로 도입된 정치체제가 주로 행정적, 경제적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말레이인들은 그러한 변화의 직접적인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말레이인의 가치체제는 크게 손상되지 않았던 것이다. 오히려 영국의 행정제도는 전통 지배엘리트의 정치적, 행정적 권위의 외양을 유지하고, 말레이인의 세계관의 변화를 목표로 하지 않는 분리된 교육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말레이인의 전통적인 가치체계를 유지시키고자 했다.

영국의 식민 통치로 인한 큰 변화 중의 하나는 말레이 반도에서 영어가 공용어로 채택되었다는 사실이다. 영어의 사용은 제국주의의 주요한 상징이 되었다. 특히 영어는 도시 엘리트 계층의 교육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식민 지배 국가의 이념과 교육, 가치관을 주입하는 상징으로 자리잡게 된 반면, 토착어를 통한 교육과 세계관은 아주 기본적인 수준에서만 확산되었다(Windstedt 1924). 이를 통해 영어로 교육을 받은 이른바 '근대 말레이인'이 창조된 것이다(Wheeler 1928).

19세기 중반이후 세계의 경제적 변화는 매우 빠르게 변모하였다. 특히 수에즈운하의 개통, 철도 및 교통수단의 발달이 동남아시아와 유럽사이의 교역활동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Tarling 1993). 이러한 변화 속에서 유럽의 식민주의는 동남아시아의 경제와 직접적인 관련을 맺게 되었다. 식민지배는 동남아시아의 전통경제를 크게 변모시켰다. 기존의 경제구조는 유럽의 '근대'적 경제체제의 영향을 벗어날 수 없었다. 그 결과 동남아시아의 전통경제는 일부는 기존의 체제를 유지한 채, 다른 일부는 유럽식 경제체제로 대체되면서 새로운 변화를 겪게 되었다.

영국 식민정부의 정책은 말레이시아의 경제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¹⁾ 그러

1) 이를 두고 서구의 학자들은 영국이 말레이시아의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었다고 주장한다. 최근에 이러한 주장에 대해 말레이시아의 경제학자와 사회학자, 인류학자들로부터 강력한 반대 입장이 개진되기도 했다. '발전'의 개념을 둘러싼 다양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Thio 1969와 Kratoska ed. 1983을 참조할 것.

나 이 지역의 경제적 변화의 주요 원인으로는 영국 식민정책의 영향뿐만 아니라 말레이인을 비롯한 원주민들과 이주민들(화인, 인도인)의 역할도 고려해야 한다. 당시에 말레이 반도의 벼농사는 그리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Tan 1963), 인근의 태국(당시에는 시암(Siam)이라 불렀다)이 말레이시아의 주요한 쌀 공급지 역할을 했다. 반면에, 말레이 반도의 주식광산업은 유럽시장의 수요에 잘 부합되게 되어 영국 자본가들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었다. 이러한 광산촌에서 말레이인뿐만 아니라 중국 남부지역에서 이주한 화인 노동자들과 화인기업의 활동도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었다(하이투스 1993). 영국 자본주의자들은 주식과 고무뿐만 아니라 후추, 커피 등의 각종 상품작물의 재배를 통해 많은 이익을 얻게 된 것이다.

화인들의 경제적 역할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당시에 말레이 반도에서의 화인들의 인구분포는 상당히 유동적이었다. 말레이 반도의 화인들이 경제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돈을 중국에 남아 있는 가족들에게 송금하거나 일시적으로 돈을 벌어들인 후 중국으로 되돌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국의 식민지배는 말레이시아 지역의 경제구조를 전면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말레이시아의 전통적인 정치질서를 왜곡함으로써 말레이시아 사람들 스스로 독립적인 정부를 형성하는 데 큰 어려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경제를 세계 경제에 종속된 경제체제로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도 부인할 수는 없다(Abdul Aziz Zakaria 1989). 그것은 자국민보다 서구인을 더 높게 평가하는 태도를 만들어냈으며 자신의 삶을 규정하고 형성하는 데 있어서 자기 교유의 방식보다 유럽의 방식을 따르도록 유도하는 제도와 관습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1941년 영국인들이 일본의 침략에 패배하며 물러나는 것을 보며 유럽인들에 대한 경외감이나 전능함에 대한 신비가 사라지고 그들 스스로 얻기 원했던 정치적, 경제적 안정이 영국인에 의해서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말레이시아에서 민족주의는 이와 같이 영국 식

민주주의에 대한 저항과 반감으로 시작된 것이다. 물론 영국의 식민통치 이전부터 말레이 반도 내에서 여러 종족과 부족을 하나로 묶고자 하는 이념적, 실천적 노력을 서서히 진행되고 있었다. 이를 민족주의로 정의할 수 있는지는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말레이시아 사람들 사이에서 부족이나 종족의 개념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조직체계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은 기존의 옛 왕국(예컨대 스리비자야(Sri Vijaya) 왕국이나 마자파히트(Majapahit) 왕국 등)의 시대부터 지속되어 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영국의 식민통치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되었다. 이러한 민족주의 또는 민족주의적 감정은 식민주의의 경제적 복지에 대한 정치적 억압이라는 사회적 압력으로 인해 잠시 소강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성찰은 후에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스스로 민족주의, 독립운동으로 발전시킴으로써 말레이시아라는 하나의 독립국가를 이루어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역사적 인식으로 발전한다.

Ⅲ. 말레이 민족주의의 형성과 전개

말레이 민족주의에 대한 정당성은 '근대'를 위한 민족주의의 노력에서 생긴 것이다. 민족주의는 근대 세계의 사회적, 지적 조건에 적합한 정치적 조직화의 형식이다. 민족주의의 출현은 '전(前)자본주의적 경제체계'가 '자본주의적 경제체계'로 획기적으로 전환하면서 발생한 것이며, 사회적 조직화의 형태들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정교해질 때 그것들은 보다 동질적이고 협력적인 활동인 노동력과 정체(政體)를 요구한다(Gellner 1983)는 주장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자본주의적 경제체계는 민족의식을 위한 경제적 조건을 산출하고, 민족국가라는 총체적인 행위 주체를 통해 민족의식을 정치적으로 강화한다고 볼 수 있다.

말레이시아의 민족주의에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온 많은

서구학자들은 말레이시아에서 진정한 의미의 민족주의는 서구의 정치사상을 인식하면서 생겨났다고 주장하는데, 그런 시각은 서구의 도래 이전부터 말레이시아에 존재하던 국가와 제국주의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이다. 19세기말까지 영국은 말레이시아를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완전히 장악하지는 못했고, 식민지배 이후에도 원주민들에 의한 여러 형태의 저항이 계속되었다. 여기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 정확하지 못한 것은 영국의 식민관료들이 식민정책에 저항하는 사건들을 도적행위 정도로 기록했던, 이른바 자민족중심주의(ethnocentrism)의 경향이 당시에 지배적이었기 때문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영국에 대한 말레이시아 사람들의 저항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약화되었는데, 그것은 이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영국 식민주의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다기보다는 식민 지배가 점차 교묘해지고 영국이 그들보다 앞선 군사력을 지녔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말레이시아의 민족주의는 유럽의 민족주의만큼이나 '진정한' 것이었다(Roff 1994). 말레이시아에서 민족 개념으로서의 '진정한' 또는 '진짜' 말레이인은 영국의 식민 지배 이전부터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Swettenham 1895, 1900, 1942, 1948). 말레이 정체성의 기원은 영국과의 식민주의를 통한 접촉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말레이 민족주의는 민족의 개념과 그것이 작동하는 원리가 영국과는 매우 다른 방식으로 형성되어 전개되었다. 그것은 우선 민족 또는 국가의 경계가 설정된 영토보다는 각 지역 중심의 위계질서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났다. 당시에 말레이시아는 적어도 세 수준의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마을 주 단위의 자치정부-도시(수도)의 순서였다. 마을은 하나의 민족정체성을 형성하는 기본 단위였고, 그 주변에는 다른 민족(또는 종족)이 사는 다른 마을이라는 단위가 존재했다.

도시, 특히 수도가 세계의 중심으로서의 상징성은 영국 식민지 시대에 만들어졌다. 이 시기에 도시는 우주론적으로 세계의 중심으로 여겨졌다. 그 이전에는 마을과 주 단위의 자치 정부의 연결로 인식되었다. 그 후 다종족간의 전쟁은 우선적으로 자신의 수도의 중심으로서의 상징적 힘을 확대하는 게 중요

했고, 물적 자원과 시장을 확보하는 것은 이차적인 것이었다. 영국인들은 이것을 더욱 고상한 방법으로 수행했다. 말레이 지역에서 그들은 영국의 식민통치에 우호적인 술탄과 귀족들을 후원하는 한편, 그들의 활동에 대가를 지불하였다. 무역과 행정의 중심인 식민지 도시가 건설되었다. 이 새로운 상업과 행정의 중심지는 규모나 중요도의 면에서 곧 옛 중심지를 능가했다(Jagjit Singh Sidhu 1980).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민족주의적 감정을 표현하지 못했던 것은 그들이 자신의 세계관의 중심이며 상징인 옛 도시와 술탄을 잃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영국 식민주의에의 복속은 정치적 주권을 상실하는 것이기는 했지만 인근의 다른 종족에게 패배하는 것과는 그 성격이 다른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민족주의 또는 민족주의적 감정이나 이를 표방한 운동은 식민지 상황에서 자신의 지위와 이익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교육과 행정적 지위를 확보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다른 종족들, 예컨대 화인들보다 더 유리한 지위에서 경제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상태에까지 이르지지는 못했다. 이전까지 말레이시아에서 경제적 성공은 술탄을 비롯한 귀족집단들에게만 많은 이득을 가져다주는 것이었지만, 영국의 식민지배 하에서는 이들뿐만 아니라 화인들의 경제적 지위와 이득이 확대되었다. 화인들은 당시까지만 해도 자신들이 이주한 지역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보다는 중국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반면에, 말레이인들은 자신이 살고 있던 지역의 정치권력이나 행정의 권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영국의 식민지배 이전에 경제력은 정치권력의 일부에 지나지 않았으나 식민지배 하에서 형성된 새로운 사회질서는 그것을 권력의 주요 원천으로 만들었다. 이러한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서 말레이인과 화인은 정치적 장에서 권력을 둘러싸고 경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주요 상대로 부각되게 된 것이다. 양자는 모두 민족주의를 기치로 내걸고 때로는 서로 경쟁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식민통치에 저항하기 위해 서로 협력을 하기도 하면서 상대방보다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긴장관계 속에 놓이게 된다.

이 점은 말레이시아의 종족정체성과 문화의 특성을 구성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된 바 있다(홍석준 1993, 1997a, 1997b). 특히 말레이 민족주의는 화인들이 자본의 축적에 성공하게 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반자본주의적 성격을 갖게 되었다.

IV. 식민주의에 대한 저항인가? 종족간 갈등인가?

19세기 후반 말레이 반도에 대한 영국의 정치적 지배의 확립과 더불어, 말레이시아(당시 영국령 말라야)는 주요한 원료수출을 위한 식민지가 되었다. 주석광산과 고무 플랜테이션은 말레이시아의 '식민경제의 두 기둥'이었으며, 이의 수출을 증가하는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로 발전하였다. 말레이시아로의 화인(주로 광동성, 복건성, 해남성 출신의 남중국인들)과 인도인(주로 인도 남부의 따밀인)의 대규모 이주는 19세기 중엽부터 20세기 중엽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이들은 주석광산과 고무 플랜테이션의 채무 노동자로, 또는 도시의 상업과 여러 직업에 종사하게 되었다(Jomo 1988: 162-171, 187-196).

말레이시아의 종족관계는 식민 경제의 일반적 특징과는 다른 점을 지니고 있었다. 유럽인의 말레이 반도로의 이민이나 원주민인 말레이인과의 혼혈은 거의 무시할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었으며, 이주민 집단의 주를 이룬 화인과 인도인도 비록 아시아계이지만 말레이인과 혼인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혼인뿐만 아니라 직업, 거주지역, 언어, 종교, 교육, 관습 등에 있어서도 이들 종족집단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생활영역과 문화전통을 유지하였으며, 상호간의 교류와 접촉은 극히 제한됨으로써 말레이시아는 다중적 복합사회(plural society)의 전형적인 모습을 갖게 되었다(Furnivall 1967).

말레이시아 식민경제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지적되는 “노동의 종족간 분업”(Lim 1984)은 자본과 노동이 종족이라는 변수와 국가권력에 의해 독특한 방식으로 결합된 양상을 보여준다. 말레이시아의 민족주의를 ‘국가주도의 민족주

의(앤더슨 1995)라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인도인 이주자는 영국 자본이 지배하던 고무 플랜테이션에 노동자로 대부분 고용되었으며, 화인들은 화인 자본가가 진출한 주석광산, 상업, 고무 플랜테이션에 주로 고용되었다. 말레이인의 경우는 전통적인 논농사나 상품작물재배(특히 고무의 소농생산)의 농업 부문에 종사함으로써, 이주자 집단이 대규모의 자본주의적 수출산업부문에 고용되는 것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인도인과 화인의 이민은 식민지 자본의 확대재생산에 필요한 노동력 요구와 자본에 의한 노동력 통제라는 기본적인 구도 하에서 이루어졌다(오명석 1993: 91). 19세기 중엽 이후 주석광산의 개발, 20세기 초기 이후의 고무 플랜테이션의 급속한 신장은 대량의 노동력 수요를 창출하였으며, 이들 노동력은 중국과 인도로부터의 이주자들에 의해 대부분 충당되었다. 이들 이주자들은 각기 다른 산업부문에 고용됨으로써 말레이시아의 특유한 형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종족에 따른 직업적 분화는 이들 종족집단의 거주지역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말레이인은 주로 농촌에, 화인들은 도시와 주석광산촌에, 인도인은 고무 플랜테이션에 거주하는 공간적 분화를 초래하였다.

말레이시아가 다중적 복합사회의 성격을 갖는데 영국 식민정부의 정책은 주요한 원인이 되기도 했다. 식민정부는 형식적인 간접통치라는 명목 하에 말레이인 보호정책을 실시하였다(Emerson 1937). 이는 말레이 술탄의 상징적인 정치적 주권을 인정하고, 이슬람과 말레이어 등 말레이 문화를 보존한다는 것이었다. 술탄의 지위와 역할을 둘러싸고 이슬람학자들(Ulama) 사이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슬람을 통한 말레이인의 종교적 유대와 단결 및 정치적 세력의 확장으로 인해 영국 식민정부와 긴장관계가 형성되기도 했다(Roff 1962, 1964, 1994). 화인사회 내부의 일에 대해서도 식민정부는 대체로 불간섭주의의 태도를 취했다. 화인사회는 비밀결사, 종친회, 향우회, 길드 등의 전통적인 사회조직과 화인 상공회의소, 정당(국민당과 공산당) 등의 사회단체를 구성하여 화인사회 내부의 갈등과 이해관계를 자체적으로 조절함으로써 식민지 체제 내에서 상당한 정도의 자율성을 확보하였다(Heng

1988: 13-33). 또한 많은 화인학교가 설립되어, 이곳을 중심으로 북경어를 비롯한 중국어의 교육과 중국 민족주의가 말레이시아의 화인사회에 확산되면서 이들의 의식은 더욱 중국 지향적이 되는 경향을 나타내기도 했다.

말레이시아의 말레이 민족주의의 발전은 1938년에 결성된 말레이청년연합(KMM: Kesatuan Melayu Muda)으로 체계적이고 구체화된다고 할 수 있다. '근대'적 의미의 지식인 집단으로 구성된 사회조직이 결성된 것이다. 그러나 이는 말레이 민족주의의 기원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들 중 대부분은 영국을 통해 유럽식 교육과정을 이수함으로써 유럽식 행동양식과 사고방식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전통적인 위계에 기초한 교구적 전망으로부터 민족적 전망을 가지고 말레이 세계를 인식하려는 목적 하에 조직을 결성하고자 했던 다른 젊은 지식인들을 대표했다(Soh 1993 참조).

그러나 이들은 19세기 유럽의 민족주의적인 지식인과는 달랐다. 그들은 매우 젊었으며 젊음과 복잡한 정치적 중요성을 연결시켰다. 그 중요성이란 비록 시간이 지나면서 변했지만 오늘날까지 그 의미는 지속되고 있다. 젊음은 유럽의 교육을 받은 첫 세대를 의미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부모세대와 언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구별되었으며 식민지화된 그들의 많은 동년배들과도 달랐다. 청년이라는 단어는 식민지 언어에 익숙하지 않았던 젊은 원주민들에게는 이해될 수 없는 용어였다. 그 당시 말레이시아에서 청년은 학교교육을 받은 청년을 의미했다. 이는 식민지 민족주의를 조장할 때 식민지의 학교 교육제도가 행한 특징적인 역할에 대해 재고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이와 같이 말레이시아 민족주의의 특징은 그것이 다종족에 기초한 민족주의의 실험이라는 점에 있다. 말레이의 식민지 경험과 결과는 두 가지 특징을 만들어냈는데, 그것은 영토의 분할과 이주민의 유입이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 말레이 민족주의의 성격을 형성했다.

우선 식민지 지배가 시작되면서 영국인들이 들어와서 점차 행정 관료가 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인도인, 화인들이 들어와 상업활동과 노동력 공급의 역할을 하였다. 이들 이주민들은 말레이 지역에 체류하기보다는 본국으로 돌아

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본국 정치에 더 관심이 많았고, 본국의 민족주의 운동을 경제적으로 후원하였다. 말레이 화인들이 손문의 혁명을 후원한 것은 그 좋은 예이다. 한편 인도네시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주했는데, 이들은 대체로 말레이 질서에 잘 적응하였고, 말레이인들은 외부 아시아인들에 대한 수적 열세를 만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환영하였다.

말레이시아에서 민족주의 운동은 톡 장굿(Tok Janggut) 운동처럼 영국에 직접 무력으로 저항한 독립운동의 성격을 띤 것도 있었지만, 화인에 대한 적대감의 표출과 같이 종족간 갈등의 양상으로 전개된 것도 있었다. 영국은 말레이 술탄의 정치적 권위를 줄이고 그들을 종교적 문화적 상징으로서의 역할만을 하게 하고 그것을 장려했는데, 이것은 말레이 엘리트들 사이에서 일종의 '문화적 퇴행'(cultural involution)을 일으키고, 정치적 보수주의를 강화시켰다.

말레이인들은 이슬람에 의해 정의되기 때문에, 이슬람의 민족주의 운동에서의 역할은 중요한 것이었다. 성지순례를 갔던 이슬람신자들(무슬림)이 그곳에서 이슬람 개혁운동의 물결을 접하고 돌아와서 반식민과 반전통, 평등사상 등을 퍼뜨렸는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범말레이인 감정을 고취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고, 말레이어 출판이 증가하게 하였다. 한편 이 당시 말레이 작가들은 아랍문자를 차용해서 말레이 구어를 표기한 말레이 방언(bahasa jawi)으로 출판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은 말레이어에서 모음을 뺀 형식으로, 해석을 위해서는 말레이어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요구한다. 따라서 이것은 민족주의 전파의 좋은 수단이 되었다.

말레이 민족주의자들은 화인을 비롯한 외부 아시아인에 대항해서 말레이인의 이익을 보호하려 했다. 1920년대 말레이인들은 전체 인구의 34%밖에 되지 않았고 게다가 대공황의 영향으로 외국인들이 점차 말레이인들이 종사하던 영역에 침투해오면서 그런 움직임이 더욱 강해졌다. 각지에서 말레이인 연합이 만들어졌는데, 1938년과 39년에 이 조직들을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실패하였다.

일본의 점령은 말레이시아에게 식량의 부족을 초래하는 등 부정적인 측면

이 많았으나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다고 평가된다. 일본은 영국만큼이나 말레이의 전통을 존중해주었을 뿐 아니라, 말레이인들을 고위직에 기용하고 사업에도 이용하였다. 화인에 대해서는 가혹한 정책을 펼쳤는데, 그것은 그들이 중일전쟁시 중국을 지원했기 때문이었다. 화인에 의한 반일 게릴라 활동은 일본 점령 초기부터 이루어졌는데, 화인들이 주도하고 약간의 인도인, 그리고 극소수의 말레이인이 참가하였다. 최초의 조직인 화인조정위원회(CMC: Chinese Mobilization Committee)는 말라야인민항일군(MPAJA: Malayan Peoples' Anti-Japanese Army)으로 통합되었고, 일본에 대한 테러를 감행하였다.

일본의 지배 후 영국은 복귀하자마자 술탄들에게 영국의 지배를 인정하는 조약을 강요하였고, 민족주의 세력들과 충돌을 일으켰다. 이런 성격의 대중운동들이 정치정당화해서 통일말레이국민조직(UMNO: United Malay Nationalist Organization)으로 발전하였는데, 이들은 조약의 무효화와 말레이인에 대한 특권을 요구하였다. 결국 영국 대표와 술탄들, 통일말레이국민조직의 대표들이 말레이 연합의 현장을 바꿔서 식민정부의 권한을 줄이고, 말레이인의 특권을 강화하였다. 시민권의 자격에 대한 제한이 주어졌는데, 이것은 화인들이 시민권을 갖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전에 말라야인민항일군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였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격렬한 테러활동을 전개했는데, 양측의 전쟁은 12년간 지속되었다. 그러나 1953년의 헬리콥터 작전, 게릴라를 돕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 그리고 독립에 대한 논의 등이 게릴라에 대한 지원을 점차 약화시켰다.

한편 영국은 말레이인과 화인들의 단합을 중재하였고, 1949년 이 제안이 받아들여졌고, 말라야화인협회(MCA: Malayan Chinese Association)와 통일말레이국민조직이 연합하여 선거에서 승리하였다. 한편 인도인과 화인에 의해 지지를 받는 야당세력이 존재했는데, 이들은 말레이인의 지지를 얻지 못해서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 대부분 말레이 정당들은 너무 국수주의적이었기 때문에 독립을 얻는 것보다 말레이인의 이익을 확보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던 것이다.

V. 맺는 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남아시아에서 민족주의는 유럽의 도래 이전부터 중요한 문제였다. 말레이 지역에서 말레이인과 같은 지배종족은 영토를 둘러싸고 서로 충돌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세력권내의 소수민족들의 민족주의와 갈등을 빚고 있었다. 유럽인들이 여기에 문제를 더했다. 그들은 소수민족 문제를 심화시켰으며 지역을 세분화하여 서로 분리시켰다. 화인과 인도인의 유입, 유럽인들의 문화적 차이 역시 민족주의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었다.

말레이시아의 독립을 인정해야 할 때도 영국의 식민 관료들은 종족적 다양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다양성을 통해 종족간 갈등을 심화시켰다. 그들은 소수민족의 자치정부를 후원하는 한편, 말레이인의 지배와 통치를 강화하는 연방제를 강제적으로 도입했다. 그러나 이러한 식민 정책은 말레이 지역에서 종족간 문화적 다양성을 보전한 상태에서 종족간 조화와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경쟁력 있는 민족의식은 서구에서처럼 문화적 정체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기본적 문제는 역시 종족 정체성이다. 종족정체성에 근거한 문화적 다양성의 근본 원인은 각 종족의 특수한 환경에 대한 적응뿐만 아니라 중국·인도·인도네시아·서구로부터의 이민족의 이주와 문화적 전파 등이다. 이러한 다양성은 언어와 종교와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현저하게 나타난다. 언어의 다양성이 형성되는 데에는 동남아에 있는 외부 아시아인들의 역할도 컸다. 즉 중국과 인도의 각 지방의 언어가 말레이 지역의 언어적 다양성에 기여하기도 했다.

이런 언어의 다양성은 상호 의사소통에 방해가 되었지만 그것을 완전히 막은 것은 아니었다. 말레이 지역에서 영어는 엘리트 교육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발전했다. 그것은 다양한 민족적, 종족적, 그리고 계급적 정체성 사이의 생활습관이나 세계관의 차이의 경계를 형성함으로써 말레이 특유의 '근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

종교 역시 언어만큼 종족적 다양성에 기여했다. 이슬람은 말레이시아의 국

교로 정해졌으며, 이는 이슬람신자들을 하나로 묶는 반면 이슬람신자와 비이슬람신자를 구분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즉 이슬람은 다종족 간 통일성을 만들어내는 데에도 기여했지만, 다종족 간 다양성 또는 파벌과 대립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말레이인은 이슬람으로, 화인들은 불교와 기독교, 그리고 도교 등으로, 인도인들은 힌두교와 시크교(Sikhs), 자이나교(Jains)와 기독교 및 이슬람교 등으로, 그 밖의 원주민들은 정령숭배신앙이나 기독교로의 개종 등으로 다양한 종교와 여러 종교의 혼합을 통해 종족간 문화적 다양성을 만들어내는 데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와 같이 종교적인 측면에서 볼 때 말레이 지역은 세계의 보편종교와 관련을 맺고 있었지만, 지역 또는 종족에 따라서는 다양한 소수종교나 교파도 존재했다. 한편 고지대인들은 각각 독특한 종교적 의례를 지니고 있었는데, 종종 종교적 상징을 통해 자신들을 국가와 연결시켰다. 종교는 종족과 민족의 정체성의 경계설정에 언어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비말레이인은 '말레이인이 되었다' 라고 얘기되었다. 이 말은 그들 나름대로의 '문명화' 되고 싶은 욕심이 이슬람을 통한 정체성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의 구성에 있어서의 다양성은 흔히 언어와 종교적 친밀성을 가로질러 나타나기도 한다. 말레이 반도 서부 지역에 정착한 수마트라(Sumatra) 출신의 미낭까바우인(the Minangkabau)과 이 지역의 말레이인은 다른 무엇보다 사회조직의 형태에서 뚜렷이 구별되고, 고지대의 경우 전 마을이 생존의 필요에 따라 종족적 정체성을 바꾸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몇 가지 일반화는 가능하다. 서구의 시각에서 볼 때 가장 단순한 것은 생존기술들의 대조적 모습인데, 즉 종족집단들이 다른 형태의 생존기술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동남아시아는, 저지대에서 농업, 어로에 종사하고 정치/종교적 제도를 장악한 몇 개의 주요 민족들에 의해 지배된다. 몇 개 형태의 종족집단이 이 중심에 다른 모습으로 관계를 맺는다. 다른 저지대인들은 농업과 어로, 소규모 기업활동을 위해 경쟁하는 소수민족이 된다. 종종 외부 아시아인들이

대규모 사업이나 교역 활동을 하는데, 이들은 도시의 전문직, 상업작물의 재배 등에 종사한다. 화전민과 수렵과 채집을 하는 사람들이 국가의 주변부에 거주한다. 이들 고지대인들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 정도에 불과하지만 그들 사이의 언어적, 종교적 다양성은 실로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이다.

말레이시아의 식민주의의 경험은 영토의 분할과 이주민의 유입이라는 두 가지 결과를 초래했다. 이것들은 말레이 민족주의의 성격을 형성했다. 우선 식민 지배가 시작되면서 영국식 행정체계가 확립되었다. 그 결과 화인들과 인도인들이 유입되어 상업활동과 노동력 공급의 역할을 담당했다. 이들은 당시에 말라야에 영구적으로 체류하기보다는 본국으로 돌아갈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들은 본국의 정치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였으며, 본국의 민족주의 운동을 경제적으로 후원하기도 했다. 한편 인도네시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주했는데, 이들은 대체로 말레이 사회질서에 잘 적응한 편이었고, 말레이인들은 화인들과 인도인들과 같은 이주민들에 대한 수적 열세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라 여기고 인도네시아 이주민들을 받아들였다.

말레이시아 민족주의 운동은 톡장굿(Tok Janggut) 운동과 같이 영국의 식민주의에 대항하고자 한 것도 있었지만, 주로 화인들에 대한 적대감의 표출로 나타났다. 영국의 식민지배는 술탄들의 군사적, 상업적 역할을 약화시키고, 그들의 종교적, 상징적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전통적인 말레이 사회구조에 큰 영향을 미쳤다. 영국인들은 술탄이 전통적인 말레이 사회질서를 유지시키고 발전시킴으로써 문화적, 종교적 지배를 더욱 공고히 해 줄 것을 희망하면서 이를 장려하기도 했는데, 이는 말레이 엘리트들 사이에서 영국식 교육과 높은 사회적 지위의 보장으로 인한 일종의 문화적 퇴행(cultural involution)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보수주의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말레이인들은 이슬람에 의해 규정되는 측면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슬람의 민족주의 운동에서의 역할을 중시했다. 이슬람은 말레이 종족 정체성의 경계를 설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비말레

이인은 “말레이인이 되었다”고 회자될 정도였다. 메카 성지순례(hajj)를 다녀왔던 무슬림들이 그곳에서 이슬람 개혁운동의 영향을 받고 귀국하여 반식민주의와 반전통, 평등사상 등을 유포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성공적이지는 않았지만 범말레이 감정을 고취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말레이어로 된 경전들과 관련 서적의 출판을 증가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 당시에 아랍어에서 차용한 말레이 고어(bahasa jawi)로 출판을 하는 경우가 생겨났는데, 이는 말레이어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요구했기 때문에 말레이 민족주의 전파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했다.

요약하면, 말레이시아에서 영국의 식민 지배는 다종족성(multi-ethnicity)이라는 특수한 문화적 배경을 형성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즉 현재 말레이시아는 다종족 국가로서, 그 인구구성의 특징을 보면, 총 인구의 60%는 말레이인이, 30%는 화인이, 8%는 인도인이, 2%는 그 외의 원주민들이 각각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구성은 1957년 영국 식민 지배로부터의 독립 이후 말레이시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을 규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여 왔다.

말레이시아의 민족주의는 영국 식민 지배에 대한 저항의 과정에서 표출된 인식의 체계일 뿐만 아니라 종족간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 각 종족집단의 ‘원초적 감정’(primordial emotion)의 표출이기도 하다. 영국의 식민지배가 외형적으로 사라진 지금, 민족주의는 말레이시아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에 잠재해 있는 식민잔재로부터 탈식민적 상황 구축을 위한 저항의 일상적 형태(everyday forms of resistance)로 남아 있다(Scott 1985). 또한 민족주의 뒤에 숨겨진 다종족 간 통합과 긴장의 문제는 마치 시한폭탄처럼 전 사회를 불안의 소용돌이로 몰아갈 수 있는 잠재적인 갈등의 불씨로 남아 있으며, 각 종족집단의 이해관계로부터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말레이시아 사람들의 일상적 인식 속에 아직 치유되지 않은 ‘조각난 비전’(fragmented vision)(Kahn and Loh eds. 1992)으로 자리잡고 있다.

주제어: 말레이시아의 근대, 영국 식민주의, 말레이 민족주의, 말레이 무슬

림, 이슬람

참고문헌

- 다독 자이날 아비딘 빈 압둘 와히드. 소병국 편역. 1998. 『말레이시아사』 서울: 오름.
- 메리 F. 소머스 하이두스. 박은경 역. 1993. 『동남아시아의 화교』 서울: 형설출판사.
- 베네딕트 앤더슨. 최석영 역. 1995. 『민족의식의 역사인류학』 서울: 서경문화사.
- 밀턴 오스본. 조흥국 책임번역. 2000. 『한 권에 담은 동남아 역사』 서울: 오름.
- 에릭 홉스봄. 강명세 역. 1994. 『1780년 이후의 민족과 민족주의』 서울: 창작과비평사.
- 오명석. 1993. "말레이 농촌사회의 성격과 역사적 기원: 죠호르의 고무재배농민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연구』 2: 85-109.
- . 2000. "말레이시아 화인사회: 다종족국가 내에서의 공존과 갈등", 『동남아의 화인사회』, 서울: 전통과현대, pp. 186-309.
- 홍석준. 1993. "현대 말레이시아의 말레이 민족정체성의 문화적 의미", 『지역연구』 2(4): 101-122. 서울대학교 지역종합연구소.
- . 1997a. "도서부 동남아시아의 종족성 연구를 위한 시론", 홍석준 외 저, 『동남아의 사회와 문화』. pp. 79-117. 도서출판 오름.
- . 1997b. "말레이시아 농촌의 이슬람화와 사회변동: 끌란탄(Kelantan)의 말레이 마을에 대한 사례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인류학과 박사학위논문.
- Abdul Aziz Zakaria. 1989. *British, Japanese and Independent Malaysia, A Memoir*, Malaysia: Institute Tadbiran Awam Negara.
- Alatas, Syed Hussein. 1977. *The Myth of the Lazy Native*, London, Frank Cass.
- Cowan, C.D. 1961. *Nineteenth Century Malaya: The Origins of British Control*, Oxford University Press, London.

- Emerson, Rupert. 1937. *Malaysia: A Study in Direct and Indirect Rule*, New York.
- Furnivall, J. S. 1967. *Netherlands India: A Study of Plural Econom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ellner, E. 1983. *Nations and Nationalism*.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Heng Pek Koon. 1988. *Chinese Politics in Malaysia*, Singapore: Oxford University Press.
- Jagjit Singh Sidhu. 1980. *Administration in the Federated Malay States 1896-1920*, Oxford University Press, Singapore.
- Jomo Kwame Sundaram. 1988. *A Question of Class*,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 Kahn, Joel S. and Francis Loh Kok Wah. (eds.). 1992. *Fragmented Vision: Culture and Politics in Contemporary Malaysia*. ASAA Southeast Asia Publications.
- Kratoska Paul H. (ed.). 1983. *Honourable Intentions: Talks on the British Empire in Southeast Asia Delivered at the Royal Colonial Institute, 1874-1928*, Oxford University Press, Singapore.
- Landon, K.P. 1943. "Malay Nationalism," *Far Eastern Quarterly* 2: 281-302.
- Lim Teck Ghee. 1984. "British Colonial Administration and the 'Ethnic Division of Labour' in Malaya," *Kajian Malaysia* 2(2): 28-66.
- Muhammad Ikmal Said. 1995. "Malay Nationalism and Malaysia's National Identity", Paper Presented to Joint Seminar between Korean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and Department of Anthropology and Sociology, University of Malaya, Kuala Lumpur.
- Provencher, R. 1975. *Mainland Southeast Asia : An Anthropological Perspective*, California: Northern Illinois University.
- Reid, A. 1988. *Southeast Asia in the Age of Commerce 1450-1680*, Vol. 1.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 1992. *Southeast Asia in the Age of Commerce 1450-1680*, Vol. 2.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Roff, William. 1961. *Guide to Malay Periodicals, 1876-1941*, Singapore.
- . 1962. "Kaum Muda-Kaum Tua: Innovation and Reaction Amongst the Malays, 1900-1941," in K. G. Tregonning, ed., *Papers on Malayan History*, Singapore, pp. 162-192.
- . 1994. *The Origins of Malay Nationalism*, 2nd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 Scott, James C. 1985. *Weapons of the Weak: Everyday Forms of Peasant Resistance*, Yale University Press.
- Silcock, T.H., and Ungku Abdul Aziz. 1953. "Malayan Nationalism," in W.L. Holland, ed., *Asian Nationalism and the West*, New York, pp. 269-346.
- Soh, Byungkuk. 1993. "From Parochial to National Outlook: Malay Society in Transition, 1920-1948." Ph. D. Dissertation, Department of History, Ohio University, Athens, Ohio.
- Swettenham, F.A. 1895. *Malay Sketches*, London.
- . 1900. *The Real Malay*, London.
- . 1942. *Footprints in Malaya*, London.
- . 1948. *British Malaya, an Account of the Origin and Progress of British Influence in Malaya*, John Lane, London.
- Tan Dig Eing. 1963. *Rice Industry in Malaysia, 1920 to 1940*, Singapore, Department of History, University of Singapore.
- Tarling, N. 1993. *The Fall of Imperial Britain in Southeast Asia*, Oxford University Press, Singapore.
- Thio, Eunice. 1969. *British Policy in the Malay Peninsula 1880-1910*, Vol.I, University of Malaya Press, Singapore.
- Wheeler, L. R. 1928. *The Modern Malay*, London.

Windstedt, R. O. 1924. *Education in Malay*, British Empire Exhibition, Malayan Series Pamphlets, London.

Abstract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Malay Nationalism(1896-1941)

Seok-Joon Hong

This paper examines the processes of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the image of 'modern' East Asia(including Southeast Asia) in terms of the description and analysis of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Malay nationalism. It investigates the speciality of the image of 'modern' Malaysia in perspective of the development of Malay nationalism. I intend to examine the interaction between the British colonialism and Malay nationalism from 1892 to 1941, when that time would be regarded as the peak period of the British colonial dominance. The British colonialism had an influenced on the almost all aspects of the Malaysian society(Malaya society, at that time) in general, on the Malays' everyday lives in particular. That influence remains in the contemporary Malay society and culture strongly.

In this sense, I will argue whether the outcome of the British colonialism would discontinue the history and culture of Malay society in Malaysia, or not. From the Malays' point of view, I investigate how the Malays recognize the outcome of the British colonialism, and what are the influences of the British colonialism on the Malays' everyday lives.

From the historical perspective, the background of appearance of British colonialism and the Malays' responses to that in perspective of Malay nationalism will be examined. Especially I will pay attention to the responses of the Malay

nationalists to the British colonial policy and governance. The most Malay nationalists who were the Ulama(the Islam leaders or Islamic religious scholars) in that time, could afford to keep the traditional customs(adat) and Islam under the circumstances of the British colonial regime. In this regard, the Malay Islam gave the best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Malay nationalism.

In conclusion, I would like to emphasize that the image of modern Malaysia would not be dealt with the concept or definition of 'modern' which would be derived from the Western cultural or intellectual traditions. It is necessary to deal with the image of modern Malaysia in perspective of the originality of Malay nationalism. In order to understand the Malay nationalism properly, I suggest that the explanation of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Malay nationalism can be given, not by the concept of 'modern' originated from the Western world, especially from the British colonial worldview, but by the concept of 'modern' generated from the Malay world or the Malay culture in itself.

Key Words : modern Malaysia, British colonialism, Malay nationalism, Malay Muslim, Islam